

야구

4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힘들 때일수록 웃으면서” LG가 1일 잠실구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팀 간 연습경기가 이달 21일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선수들은 훈련 하나하나에 실천처럼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외야에서 송구 연습 중인 김현수와 스트레칭을 하며 해맑게 웃고 있는 지우찬, 타격 훈련에 한창인 유강남(왼쪽부터).

기약 없는 개막일... ‘어쩌다 봄 방학’ 선수들의 하루나기

“누워서 빈둥빈둥” “밀린 드라마 정주행”

KT 등 구단들 선수단에 짧은 휴가 드라마·게임 등으로 무료함 달래 배제성 “야구게임은 절대 안할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KBO리그 개막을 연기해 미루고 있다. 야구가 사라진 봄. 하릴없이 몸만 만들며 지친 선수들에게 구단이 ‘봄 방학’을 선사하는 분위기다. KBO는 3월 31일 실행위원회(단장 모임)를 개최해 개막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당초 3월 28일 개막이었지만 현실적으로 4월 내 개막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친 선수들이여, 사나흘이라도 쉬어라 구단들의 쉼벌도 달라졌다. KT 위즈

는 선수들에게 곧장 짧은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돌아온 뒤 줄곧 ‘3일 훈련 후 하루 휴식’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훈련한 뒤 내리 사흘을 쉰다. 당초 4.5일에는 청백전이 예정됐으나 이를 휴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실행위원회 결정 직후 내려진 조치다. 이강철 감독은 1일 “개막 임박해서 쉬면 부담이 된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개막이 연기된 지금이 적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봄 방학’이다. 가장 먼저 휴식을 준 팀은 KIA 타이거즈다. 맷 윌리엄스 신임감독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휴식을 줬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캠프부터 강행군을 이어온 선수들을 배려한 것이다. 당시 4월 20일 후 개막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몸을 만드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낮선 봄 방학은 아직 실전 모드에 돌입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에 지친 선수들에게 당근을 주려는 의도가 더해진 결과다. 청백전을 꾸준히 소화하고 있지만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백전을 6이닝 안팎으로 꾸준히 진행 중인 김태형 두산 베어스 감독은 “벌써부터 9이닝 정식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지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가운 봄 방학, 일과는 ‘방콕’

물론 갑작스런 봄 방학에도 선수들의 일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10개 구단 선수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집들이’ 생활을 하는 중이다. 팀 훈련 때를 제외하면 산책 한 번 나가기도 조심스러워하는 입장

이다. 서울 한강공원에 점차 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KBO 리그 선수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자연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활용해 드라마와 영화 ‘정주행’에 빠진 선수들이 즐비하며, 젊은 선수들은 비디오게임을 즐기며 고민을 잊는다. KT 박세진은 “최근 촬영한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를 몰아봤다”고 밝혔으며, 팀 동료 배제성은 “침대에 누워있거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는 게 전부다. 야구게임은 안한다. 집에서까지 야구를 하고 싶진 않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이성규

5년 전의 구자욱처럼 부화하고 있는 이성규

삼성 거포 기대주...수비 보완 땀방울

2015 시즌 KBO리그 신인왕은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27)이었다. 1군 데뷔 첫 시즌부터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기대에 부응했고, 지금은 삼성 타선에 없어선 안 될 핵심 자원으로 거듭났다.

준비과정이 순조로웠다.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이던 2013~2014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타격의 달인으로 통했다. 2013 시즌 88경기 타율 0.301, 6홈런, 45타점, 출루율 0.391을 기록했고, 2014 시즌에는 75경기 타율 0.357, 3홈런, 48타점, 출루율 0.447을 기록하며 남부리그 타격왕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덕분에 1군에서도 자기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

올 시즌에도 5년 전 구자욱과 같은 과정을 밟으며 기대를 모으는 타자가 있다. 그 주인공은 ‘거포 기대주’ 이성규(27)다. 경찰야구단(경찰청) 소속이던 2018 시즌 4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는 등 31개의 가치를 그려며 북부리그 홈런왕에 올랐을 때부터 팬들의 기대치를 잔뜩 끌어올렸다. 지난해 1군 16경기에서도 2홈런을 기록했는데, 시원하게 뺀 타구의 호쾌함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다.

이미 1군 경험을 한 것만 제외하면, 구자욱의 2015 시즌 직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구자욱은 공격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확실한 수비 포지션이 없었다. 지금은 외야수로 자리 잡았지만 그때는 1루수(590.2이닝)와 우익수(143이닝), 3루수(58이닝), 중견수(53.2이닝), 좌익수(19이닝)를 오갔다. 수비의 불확실성을 공격으로 상쇄한 케이스다.

이성규도 그렇다. 경찰청에선 주로 유격수로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수비만 놓고 보면 다들 알아 할 부분이 많았다. 유격수(38이닝)와 3루수(36이닝), 2루수(8이닝)를 오가며 불안요소를 노출했다. 당시 코칭스태프도 “수비가 다소 거친 면이 있다”고 했다. 허삼영 삼성 감독도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기간 내내 이성규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 그를 다양한 포지션에 배치하며 가능성을 점검했다. 타격면에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다. 5년 전 구자욱처럼, 타선에서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삼성은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된다. 이성규가 오랜 기다림 끝에 알을 깨트릴 수 있을까.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노시환 유격수 변신...내야 팀스 강화 나선 한화

청백전 유격수 테스트서 성적 준수 내야수 오선진·김현민도 기회 꾸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시즌 개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KBO리그 10개 구단은 국내에서 사실상 2차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대부분 ‘3일 훈련-1일 휴식’의 반복적인 일정에 따라 전력의 취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화 이글스 역시 훈련과 청백전을 병행 중인데, 내야 팀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전고투한 지난해와 달리 외야는 치열

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바뀐 상태다. 징계에서 벗어난 이용규가 복귀하고,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정진호와 김민호가 가세한 덕분이다. 좌익수 한 자리는 여전히 시계제로의 점전지일 정도로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반면 내야 사정은 좀 다르다. 주전 유격수 하주석이 부상을 털고 돌아온 것 외에는 마땅한 플러스요인이 없다. 기존 선수들의 기량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한화 감독은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유격수 노시환’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다.



노시환

지난해 데뷔한 노시환(20)은 주로 백업 3루수로 1군 적응기를 보냈다. 3루수로 167이닝, 유격수로 60이닝을 뛰었다. 유격수로도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꺾질을 깨는 과정이라 유격수 겸업 또는 변신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은 시간적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뚝하지 않게’ 시간을 벌었다. 청백전이지만 실전에서 유격수로 집중 테스트를 받고 있다. 3월 한 달 치른 6차례의 국내 청백전 중 5경기에 유격수, 1경기에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수비부담이 늘면 타격에도 영향을 받는 법이지만, 다행히 청백전 성적은 20타수 5안타 1홈런

7타점으로 준수한 편이다.

눈여겨볼 또 한 명은 베테랑 내야수 오선진(31)이다. 지난해 하주석의 부상 공백을 훌륭히 메워줬지만, 데뷔 후 처음 역대 연봉자(1억5000만 원) 대열에 합류한 올해는 내야 전 포지션에 걸쳐 조커로 중용될 전망이다. 노시환이 유격수로 활동반경을 넓히면 오선진은 과거 익숙했던 2루수 또는 3루수로 더 나설 수 있다. 실제로 3월 국내 청백전에 유격수로 3차례, 3루수로 2차례, 2루수로 1차례 선발 출전했다.

여기에 더해 고졸 2년차 내야수 김현민(20)도 국내 청백전에서 꾸준히 2루수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 아직 1군 경력이 전무한 신예지만, 내야 팀스 강화에 사활을 건 한화가 주목하는 또 한 명의 예비전력임에는 분명하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특급신인 박주홍, 박병호 1루 자리까지 넘본다

라이징스타 미리보기 ● 키움 박주홍

입단 첫 해부터 눈독...복캠프 완주 외야+1루수 멀티 포지션 도전나서

“(박)주홍이는 한번 데려가서 볼 계획입니다.”

2020 대만 스프링캠프 앞두고 키움 히어로즈 손혁 감독(47)은 흥미로운 얘기를 전했다.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장기간 1군 스프링캠프에 신인 박주홍(19)을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었다.

리그 데뷔전을 치르지도 못한 ‘루키’가 즉시 전력대로만 구성된 1군 캠프에 동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감독은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기

에도 정신이 없다. 그런데도 1년 차 선수를 데려간다는 건 그 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었다.

188cm, 92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박주홍은 손 감독의 기대대로 낙마 없이 스프링캠프 완주에 성공했다.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습경기과 훈련에서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 대열에 후보군으로 합류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은 쉽게 설명된다. 키움은 현재 이정후와 임병욱을 제외하고 다른 외야수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베테랑 이택근, 2019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인 김규민과 박정음, 여기에 최근 트레이드로 합류한 박준태까지... 모두가 박주홍보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선배들이다.

좁은 틈조차 없어 보이는 이 대열에 박



박주홍

주홍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준급의 공격력과 점점 성장세를 보이는 수비력으로 코칭스태프의 눈도장을 찍는 중이다. 1군과의 동행은 현재도 계속된다.

최근에는 멀티 포지션 소화 가능성도 선보였다. 박병호의 존재로 대체 불가라 표현되는 1루수 자리에도 명함을 내밀었다. 지난 3월 26일 청백전에는 1루수로 나서 2루타를 날리는 등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손 감독은 “박주홍은 캠프 때부터 외야와 1루를 병행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면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홍 역시 1루수 출전에 “쉽지 않지만 포지션을 늘리는 건 나 스스로에게도 좋다”고 설명했다. 키움은 과거 넥센 시절부터 어린 유망주

를 짧은 시간 안에 1군 전력으로 만드는 데 장기를 발휘한 팀이다. 특히 야수 부문에서는 서건창, 김하성, 이정후 등 굵직한 자원이 유독 많이 나왔다. 박주홍은 2017년 이정후 이후 키움에 3년 만에 선택한 1차 지명 야수다. 유독 공을 들고 있는 ‘콤팩트’는 또 하나의 천재 신화를 만들 수 있을까. 히어로즈와 박주홍의 궁합이 유독 더 궁금한 이유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키움 박주홍

▲생년월일=2001년 4월 16일 ▲출신교=덕풍초(하남시리틀)~건대부중~장충고 ▲키·몸무게=188cm·92kg ▲입단연도=2020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 ▲입단 계약금=2억 원 ▲포지션=외야수(좌투좌타) ▲2019년 성적=고교대회 16경기 타율 0.345(58타수20안타), 2홈런, 18타점, 장타율 0.603, 출루율 0.459